

농가소득 4천만원대 진입...농업소득은 감소

농촌경제연구원 2019 농업전망

올해 농가소득이 전년대보다 증가하면서 4000만원대로 진입하고 농림어업취업자 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농업으로 인한 소득은 감소하고 겸업 등 농업 외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농가인구 감소도 여전히 국내 농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 농업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소득이 전년대보다 각각 6.7%, 3.5%, 1.5% 증가한 3961만원으로 추정된다. 올해의 경우 경영비 증가 등으로 농업소득이 전년대보다 1.9% 감소, 이전 소득도 1.3% 감소하지만 농외소득이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농가 전체소득은 전년대보다 1.1% 증가한 4006만원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농업소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향후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총액 증가와 농외소득·이전소득의 증가 추세 등으로 오는 2028년 명목 농가소득은 연평균 2.0% 증가해 약 4837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농경원 측의 설명이다.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앞당기기 위한 노

농업 소득 전년대비 1.9% 줄고 농외 소득 4.4% 증가 예상

인구, 전년대비 1.7% 줄어든 234만명...65세 이상 43.3%

농림어업취업자 136만명 증가세 둔화...농업 체질 개선 필요

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가 여전히 가운데 올해 역시 농가인구가 전년대비 1.7% 감소한 234만명으로, 농가호수도 1.4% 감소한 101만호로 예상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중 역시 전년대비 0.4%포인트 상승한 43.3%로 예상돼 농촌 고령화 문제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136만명으로 추정됐다.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이마저 지난 2018년 증가율인 4.8%보다 3.3%포인트 하락해 둔화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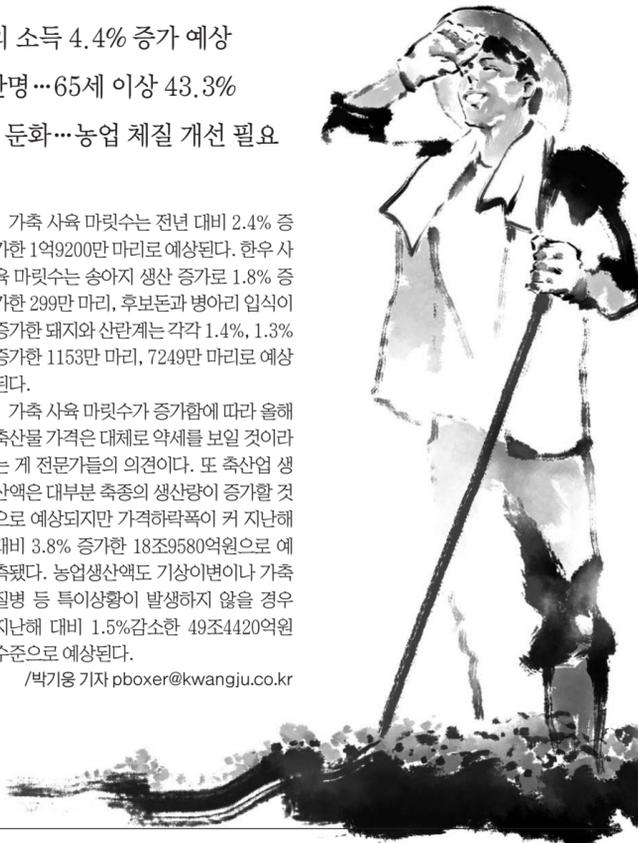
여기에 올해 경지면적과 재배면적은 감소세가 이어지지만 가축 사육 마릿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경지면적의 경우 전년대보다 0.8% 감소한 159만ha로, 재배면적은 0.9% 줄어든 162만h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인구당 경지면적은 오히려 전년대비 0.8% 증가한 67.9a로 추측된다.

가축 사육 마릿수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1억9200만 마리로 예상된다. 한우 사육 마릿수는 송아지 생산 증가로 1.8% 증가한 299만 마리, 후보돈과 병아리 입식이 증가한 돼지와 산란계는 각각 1.4%, 1.3% 증가한 1153만 마리, 7249만 마리로 예상된다.

가축 사육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축산물 가격은 대체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축산업 생산액은 대부분 축종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하락폭이 커 지난해 대비 3.8% 증가한 18조9580억원으로 예측됐다. 농업생산액도 기상이변이나 가축 질병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대비 1.5%감소한 49조442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T, 상반기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단원 모집

3월부터 인도·캄보디아 등 6개국에 파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올해 상반기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AFL0) 6-7기 단원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해외개척단은 해외시장정보에 취약하고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해외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시장조사, 신규바이어 발굴, 현지영업, 홍보 등을 수출현지에서 밀착지원해주는 식품무역분야 현장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년 6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00명의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파견임무를 완수, 이들 청년개척단과 매칭된 100개의 프랜차이즈업체 중 절반 이상이 신규국가로의 첫 수출을 이뤄냈다.

올해 새롭게 도전할 청년개척단은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등 6개국을 중심으로 선발해 수출역량 강화교육과 수출업체 현장교육을 받은 후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해당국에 파견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파견기간을 3개월, 6개월로 구분해 청년들의 장기 경력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청년개척단사업은 해외영업·무역 등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경력 및 진로개발을 지원하고 수요 후에는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를 통해 취·창업의 길을 열어주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 마련 등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청년개척단은 농식품 분야에 관심과 역량있는 청년(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오는 2월 1일까지 이메일(afl0@globaledu.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31보병사단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협약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와 육군 제31보병사단(사단장 소영민), 평동농협(조합장 김익찬)은 최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31보병사단 간부식당에 납품되는 쌀과 식자재를 광산구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평동농협과 광주 통합RPC에서 공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점차 사업을 확대·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일수 본부장은 "군과 농협이 손을 맞잡고 농업·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17억4400만원이 늘어난 45억3800만원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미 연준 통화정책·미중 무역협상 긍정적

외국인 추가적 자금유입강도 예의 주시

중국·수소차 관련주 조정시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가 2.52% 오르며 2177.73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코스닥지수는 700선을 회복하며 711.38포인트로 마감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긍정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 가치 안정이 지속되면서 선진국 증시보다 이머징국가로 글로벌자금이 유입되고 국내증시에 외국인 순매수가 급증하며 증시상승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4108억원을 순매수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276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주 코스피지수 전기전자업종에서만 1조 3198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삼성전자(5979억원)와 SK하이닉스(4998억원)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한 시장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 24일 SK하이닉스 실적발표에서 반도체가격 하락시 적극적인 감산의지를 보이면서 복잡한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과거 '치킨게임'과 같은 점유율 경쟁보다 물량조절을 통한 영업이익을 추구하면서 실적불안감을 완화시켰다. 또 3분기 이후 반도체시장회복 기대감으로 저가매수 및 공매도 숏커버링이 유입됐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 주문(일정한 규칙에 의해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주문)을 확인하는 당사 '수급속속'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난주 24일과 25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호 텔신라 등 대형주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 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패시브 성격의 외국인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오는 30-31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상반기 금리동결과 통화감축 완화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비둘기파'적 입장 강화가 필요하다. 또 같은 기간에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워싱턴에서 두번째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는데, 강제기술 이전, 중국제조2025 등 주요 논제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전망과 중국의 수입확대 단행으로 관세부과가 추가 유예되고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을 지속한다면 글로벌투자자금의 이머징국가로 추가적인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주는 미국증시에서 미·중 무역분쟁 관련기업인 캐터필러와 보잉,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업인 애플, MS, 페이스북, 알리바바, 아마존의 4분기 실적발표가 예정됐다. 이들기업의 실적 기대치는 낮아졌고 시장에 상당부분 반영됐지만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코스피지수가 2180선에 근접하면서 지난해 12월 하락폭을 모두 회복했고 올해 이익추정치 대비 9.4배 수준으로 약세장에서 극단적인 저평가 국면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지난주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25일에만 8217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지난해 외국인이 하루 8000억 이상 순매수한 것은 5월 31일(9500억원)과 9월 27일(8245억원)로, 당시 코스피지수는 후속 매수세 유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6월 미중무역분쟁 심화 및 10월 FOMC의 긴축강화 발언으로 두차례 모두 하락세로 전환됐다. 따라서 이번주 미중무역협상 및 FOMC 회의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주 외국인의 추가적인 자금유입강도가 약화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지난주 코스피지수 2180선을 제시했는데 1월과 2월은 약세장에서의 '미니 유동성 펄리'라 할 수 있다. 추가이익비율(PER·주가를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이 낮은 주 중심으로 상승국면은 이어지겠지만 최근 단기상승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많아 변동성 확대 및 단기 숨고르기 장세속 순환매를 통한 낙폭 과대주의의 키트추기 장세가 예상된다.

절대적으로 PER이 낮은 IT 업종에서 소외주의 반동 및 중국출원 연휴와 중국 추가 정책 발표 기대로 중국관련주, 그리고 정부 정책수혜가 기대되는 수소차 관련주는 조정시 관심이 좋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